日천태종 역사, 한눈에 살피다

도쿄국립박물관, 11월 21일까지 천태종 불교유물 특별전 개최

박영빈 객원기자



전시회에 공개된 현존하는 사이쵸 대사상 중 가장 오래된 목조좌상(13세기).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일본불교의 성지인 히에이잔(比叡山)과 일본 천태종을 개창한 사이쵸(最澄) 대사의 원적 1200주년을 맞아 일본에서 특별전이 개최됐다. 일본 천태종이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장소를 바꿔가며 내년 5월까지 이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다.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특별전을 지난 10월 20일 일본의 '야후재팬 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전시회의 중심이 되는 사이쵸 대사는 804년 입당유학을 통해 천태산에서 〈법화경〉을 근간으로 하는 천태종을 수학했다. 일반적으로 교학의 연찬과 지관(止觀)으로 알려진 선법으로 수행하는 중국 천태종의 전통에 사이쵸 대사는 밀교와 율종의 가르침을 혼합하여 천태종의 새로운 지평을 넓힌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사이쵸 대사의 유풍은 일본불교의 중흥기라 불린 가마쿠라(鎌倉)시대에 등장한 호넨, 신란, 니치렌, 도겐 등 타 종파들의 종조들이 히에이산에서 수행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박물관 측은 "사이쵸 대사의 사상과 그 사상의 도량인 히에이산은 일본불교가 발전한 산실"이라며 특별전을 개최하는 의의를 전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특별전 '사이쵸와 천태종의 모든 것'은 사이쵸대사 원적 1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이다. 사이쵸 대사의 입당유학과 천태종의 개창으로 시작하는 전시는 사이쵸 대사의 법통을 이은 제자들과 일본 각지로 전파된 천태종의 법등을 소개한다. 이어서 천태신앙의 심화와 함께 꽃핀 문화예술과 사상, 근대의 천태종의 흐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박물관 측은 "이번 전시는 도쿄에서 시작해, 큐슈, 교토 국립박물관을 이어가며 각 한달 반가량씩 진행된다. 각 전시마다 전시품의 교체를 통해 전시되는 지역에서 꽃피웠던 천태불교의 미술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각 전시장의 지역성을 살리고, 해당 지역에서 발전한 천태신앙에 중점을 둔 기획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실제 산문 밖을 나선 적 없었거나, 일반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었던 성보들이 대거 전시된다.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의 전시회에선 200년 만에 외부에서 공개된 '지에대사 좌상(慈恵大師坐像)'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좌상은 2m 높이의 목조좌상으로 일본 최대의 초상조각품이자 조사상으로 알려져 있다. 원 봉안처인 도쿄의 진다이지(深大寺)측은 "해당 조사상은 50년에 한 번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종조인 사이쵸 대사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박물관에서 대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에대사는 민간에서 역병을 막아주는 원력이 있다고 전해져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더 많은 분이 친견에 용이한 박물관에서 지에 대사를 뵙고 용기를 얻길 바란다"고 진다이지 측은 전했다.

도쿄국립박물관에선 오는 11월 21일까지 전시가 이어지며, 2월부터 3월까진 큐슈국립박물관, 마지막 전시는 교토국립박물관에서 4월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교토 전시회에서는 사이쵸 대사가 천태산에서 유학했던 당시 천태6조인 담계 형연 대사에게 인가의 증거로 받은 7조 가사가 전시될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日시코쿠 순례, 세계문화유산 등재 본격화

순례처에 봉안된 불상들 조사 나서



네고로지에 봉안된 목조오대존상. 사진출처=NHK뉴스 캡처

1200년의 역사를 가진 시코쿠 88개소와 순례길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관에서 조사에 나섰다. 시코쿠섬에 소재한 4개현 중 66번부터 88번까지의 순례처가 산재한 카가와(香川)현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 가운데 순례처에 봉안된 불상에 대한 조사보고회를 진행했다. 10월 23일 일본의 'NHK 뉴스'는 현립 박물관이 개최한 조사 보고회의 모습을 전했다.

다카마츠(高山)시에 소재한 제 82번 순례처인 네고로지(根香寺)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카가와 현립 박물관과 현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보고회는 그간 진행됐던 조사내용과 함께 회장인 네고로지에 봉안된 '목조오대존상(木造五大尊像)'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설명이 중심으로 진행됐다.

네고로지에 봉안된 목조오대존상은 부동명왕을 본존으로 대위덕명왕, 금강야차명왕, 군다리명왕, 항삼세명왕의 5존으로, 1969년에 카가와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현립 박물관 측은 "그동안 불상은 14세기 중후반에 조성됐던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2004년, 보존수리를 위해 불상을 해체했을 때, 본존인 부동명왕상의 내부에서 1286년에 조성했다는 묵서명문이 발견됐다"며 그 역사적 가치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13세기에 조성된 등신대의 부동명왕상이 완벽한 상태로 현존하는 것은 드문 예일뿐더러, 카가와현 내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70번 순례처인 모토야마지(本山寺)의 본당과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것이라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이후 보고회의 참가자들은 수리를 마치고 원래의 자리에 봉안된 오대존상과 함께,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불상과 전적들을 견학하고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카가와현 측은 "현재 현 차원에서 '시코쿠 88개소와 순례길'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순례처들과 남은 옛 순례길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3년 전부터 이러한 보고회를 지역 곳곳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회에 참가한 70대 남성은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었지만 해설을 듣고선 새로운 마음으로 불상을 보게 됐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카가와현 문화진흥과의 마츠모토 카즈히코 과장보좌는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는 지역주민의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가치를 알릴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샨티"…스티브 잡스 18세 친필편지 경매

절친에게 보낸 편지 경매, 선불교 관련 언급

애플 前 최고경영자(CEO) 故 스티브 잡스가 18살 때 쓴 선불교 관련 손글씨가 경매에 나와 이목이 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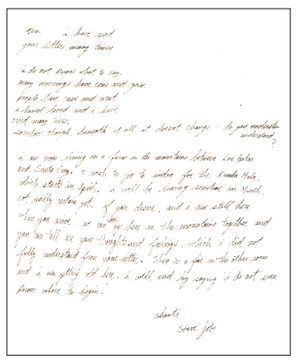
10월26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브 잡스의 친필 편지가 내달 3일 영국의 경매 회사인 본햄스(Bonhams)를 통해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해당 편지는 스티브 잡스가 19세 생일 전날인 1974년 2월 23일 자신의 친구인 팀 브라운에게 보낸 답신으로, 선불교에 대한 잡스의 생각과 인도 여행에 대한 그의 열망이 담겨 있다. 팀 브라운은 스티브 잡스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잡스가 사망할 때까지도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스티브 잡스는 편지에서 "팀, 나는 네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많은 순간들이 오고 갔다. 사람들도 오고 간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사랑도 해봤고, 울기도 해봤다"며 "그러나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넌 알고 있니"라고 적었다.

또 그는 "나는 4월에 인도에서 열리는 쿰부 멜라(Kumbh Mela) 축제에 가고 싶다. 아직 정확히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3월 중에는 인도로 떠날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만 글을 마친다. 샨티"라고 마무리한다.

편지에서 언급된 쿰브 멜라는 인도에서 1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최대 종교 축제다. 아울러 '샨티'는 산스크리트어로 '몸과 마음의 평화'를 뜻한다.



본햄스는 "편지 작성 당시 잡스는 대학을 중퇴하고 사과 농장에서 일하다 산타크루즈 산맥의 한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다"며 "10대 시절 잡스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잡스가 애플을 창업하기 2년 전에 작성한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고도 덧붙였다.

외신들은 해당 편지가 최소 20만 달러(한화 약 2억3500만원)에서 최고가 약 30만 달러(한화 약 3억5300만원)에 팔릴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한편, 스티브 잡스는 생전 불교신자였다. 자신의 결혼식도 불교식으로 올렸으며, 선불교 명상을 하는 모습이 자주 대중에 노출된 바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141년 만에 인도로 돌아온 진신사리

인도, 1898년 친교 의미로 스리랑카에 반출한 유물 환수

인도에서 발굴됐던 석가모니 부처님 사리가 스리랑카로 옮겨간 뒤 141년 만에 다시 인도로 돌아왔다.

방글라데시 경제지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Financial Express)는 10월 26일(현지시간) "스리랑카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부처님 사리가 지난 10월 20일 스리랑카 콜롬보-인도 쿠시나가르 간 취항 비행에 오른 나말 라자팍샤 내각 장관 등 123명의 스리랑카 대표단에 의해 인도로 향했다"고 밝혔다.

이 부처님 사리는 문화 당국으로부터 국빈 지위를 얻어 스리랑카항공 1A석을 통해 옮겨졌다. 유물은 상자에 담겨 흰 천으로 덮여 있었고, 유물 이동 규격에 따라 귀중품으로 분류, 이송됐다.

아울러 이번 환수 과정에는 와스카두와 유적사(Waskaduwa relics temple) 주지 와스카두와 마하나야케 테로도 동행했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앞서 인도는 친교의 의미로 해당 부처님 사리를 스리랑카에 전달했다.

해당 유물은 1898년 1월 1일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지역의 한 사유지에서 발굴됐다. 이곳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이르러 숨을 거둔 곳으로 알려진 쿠시나가르에서 약 160km 떨어졌다.



사진출처=자료사진

해당 매체는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부처 유물을 전시하는 것은 국가 간 관계를 떠나 불교 문화권에서도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며 "앞서 카필라바스투(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지) 유물은 1978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스리랑카로 반출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타국에 반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